탁월한 주행 성능·넓은 공간…레이, 경차야? SUV야?

5년 만에 두 번째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기아 레이' 시승기

성인 4명 탑승에도 잘 나가고 전 좌석 풀 플랫으로 '차박' 거뜬
앞·뒷좌석 문틀 없어 어린이·대형 반려견 등 타고 내리기 편해

신차 시승 체험이라는 설렘도 잠시, 해당 차종이 '더 뉴 기아 레이'라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다. 나름한 '덩치'(?) 하는 탓에 경차 시승은 다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더 뉴 기아 레이'의 문을 열자 이런 우려는 싹 사라졌다. 어떻게 경차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최근 기아가 5년 만에 두 번째 상품성 개선을 통해 새롭게 출시한 '더 뉴 기아 레이'를 시승했다. 레이 가솔린 1.0 시그니처 A/T 2WD 기본형으로, 옵션은 드라이브와이즈2와 스타일, 내비게이션 등이다. 시승 구간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화순 도곡면까지 왕복 약 26㎞ 구간이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외관부터 살펴봤다. 네모난 각진 형태의 차량 디자인에 차체에 비해 큰 'E' 형태의 헤드라이트가 적용돼 귀여움은 여전하면서도 이전에 없던 강한 인상이 더해졌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깔끔한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로 '타이거 페이스'를 레이에 맞게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기아 직원은 설명했다.

지난 1일 출시된 '더 뉴 기아 레이'는 2017년 이후 5년 만의 두 번째 상품성 개선 모델로 뛰어난 공간 활용도가 돋보인다. 〈기아 제공〉

곧장 운전석 문을 열었더니 경차답지 않은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리나 제대로 펼 수 있을까', '운전석이 좁아 핸들을 잘 돌릴 수 있을까'라는 과거 경차 운전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를 단번에 날릴 수 있었다.

실제 경차 운전 경험을 살려 운전석을 시트를 뒤로 최대한 밀고 탑승했는데,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이 닿지 않아 다시 운전석을 앞으로 당겨 조정할 정도로 공간이 넉넉했다. '박스카' 답게 천장도 높아 마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석에 앉은 듯했다.

넓은 실내 공간만큼 공간 활용도 역시 뛰어났다. 넉넉한 헤드룸을 자랑하듯 운전석과 보조석 천장 쪽으로는 각각 수납공간이 달려 있었고, 2열에도 컵홀더나 좌석 밑에도 수납공간을 마련해 알찬 공간 구성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앞좌석 풀 폴딩과 뒷좌석 슬라이딩, 6대 4 폴딩 기능을 적용해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뒷좌석 전체를 트렁크로 활용해 부피가 큰 짐도 어려움 없이 적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좌석을 접은 뒤 매트리스를 깔면 성인 2명도 충분히 누울 공간이 마련돼 '차박'으로도 안성맞춤이었다.

또 왼쪽 문은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문틀(B필러)가 없어 드나드는 공간이 넉넉해 어린이와 대형 반려견도 편히 타고 내릴 수 있어 보였다.

내부 감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주행에 돌입했다. 평균 체중 90㎏에 육박하는 성인 남성 4명이 탑승한 탓에 '무거워서 잘 나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지만 주행성능은 꽤 만족스러웠다. 시야가 탁 트여 개방감이 좋았고, 핸들과 기어레버의 조작감도 우수했다.

제2순환도로에서 속도를 시속 90㎞/h까지 올리는 과정에서도 막힘이 없었고, 고속 주행 시 차체의 흔들림이나 풍절음도 적었다. 순환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는 또 한 번 놀랐다. 일반 승용차 통행요금이 1200원인 것과 달리 레이는 경차 할인을 받아 600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넓은 운전석 공간과 경차 이상의 주행성능으로 주행 중 경차를 몰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 기능으로 '차박'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데다, 문틀(B필러)가 없어 드나드는 공간이 넉넉해 활용도가 높았다. 〈기아 제공〉

모든 주행을 마치고 연비를 확인했다. 도심 주행과 순환도로 고속 주행을 모두 합쳐 26㎞ 주행 연비는 12.1㎞/ℓ를 기록했다. 레이의 복합연비 13㎞/ℓ에는 못 미쳤으나, 성인 남성 4명을 태우고 짧은 거리를 주행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이밖에 차로를 인식해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차로 유지 보조나,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탑재도 운전의 편의성도 향상됐다.

한편 '더 뉴 기아 레이'의 판매 가격은 승용 ▲스탠다드 1390만원 ▲프레스티지 1585만원 ▲시그니처 1720만원이며, 2인승 밴 ▲프레스티지 135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90만원, 1인승 밴 ▲프레스티지 134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75만원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 최우수

2년 연속 중기 지원·인프라 투자·코로나 금융지원 등 높은 점수

광주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 데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광주은행은 광주와 전남 두 지역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전남지역에서는 시중·지방은행을 통틀어 유일하게 광주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은행은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의 정량평가와 지역 내 경제 기여도, 지역기업 투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등 정성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점포 수 등 인프라' '지역 금융 지원 전략' 등으로 나뉜다. 정량 및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해 점수를 산출하며 코로나19 금융지원 노력도 반영된다. 은행 권역의 점포 폐쇄 수에 따라 감점하는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되는데, 금융위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경영실태평가(금감원) 및 지자체·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선정 '2022년 상반기 국내은행 관계형 금융 취급실적 및 우수은행 평가 결과'에서 중소형그룹 부문 1위를 2년 연속 차지했다.

기업 경쟁력을 반영한 대표 시상식인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거머쥐기도 했다.

이외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소형은행 중 1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 접점 부문(고객만족도 평가) 지방은행 1위 등 실적도 올렸다.

'지역 재투자'와 '관계형 금융' 평가 등에서 세운 성과는 취임 5주년을 맞은 송종욱 은행장의 경영이념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과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에 따른 금융지원에서 비롯했다.

개소 3주년을 앞둔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희망 동반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금융 취약 소비자를 1금융권으로 포용하고자 '신용관리서비스'(CMS)를 운영한 덕분에 2020년에는 금융감독원 '포용금융 경영 컨설팅 지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 송종욱(가운데) 은행장이 29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성과를 기념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프라임 플러스론'도 같은 맥락에서 출시됐다.

광주은행은 포용금융센터뿐만 아니라 각 영업점 포용금융대출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직원 시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제공한 대출 지원은 지난달 말 기준 3만3153건, 1조4534억원에 이른다.

광주은행이 해마다 당기순이익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노력도 각종 시상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적십자가 10억원 기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지난해 여름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구호 물품으로 만든 '사랑꾸러미'(1억2500만원 상당) '응원꾸러미'(5000만원 상당)를 지역민에 전달했다.

광주은행의 대표적 장학사업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1700여 임직원들은 '삼계탕 배식 봉사' '연탄 나눔' '김장 하기' 등을 통해 사계절 사회공헌활동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송종욱 은행장은 "지금의 광주은행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민에 감사를 전한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택시 대란 속 '카카오 T 벤티' 광주 상륙

5곳 경유지 설정·대절 가능

'택시 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대 5곳의 경유지를 설정할 수 있는 대형택시 '카카오 T 벤티'〈사진〉가 29일 비수도권 지역 중 광주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 T 벤티'가 모바일 앱 카카오 T를 통해 광주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에서 운행을 시작한 '카카오 T 벤티' 택시는 총 5대로, 택시 운수사 5개사가 참여한다.

광주지역 연내 목표 운행 대수는 50대로, 오는 11월에는 목포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대형택시는 카니발·스타렉스 등 9~11인승 대형 승합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이다.

최대 5명이 원하는 경유지를 설정해 함께 이동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절'도 가능하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단체 여행모임이나 골프모임 등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카카오 측은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시업계는 택시기사가 줄어들며 위축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광주지역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3364대이지만 운전자 수는 2811명으로, 550명가량 부족한 셈이다. 광주지역에서 개인택시는 4789대 면허가 등록됐다.

대형택시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의 120% 수준으로, '최고조(피크) 시간대'에 최대 4배까지 늘어나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800m까지 4000원(중형택시 2㎞까지 3300원)이며 123m당 100원 거리요금이 붙는다. 별도 시간 대절 요금과 편도 예약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취소 때는 수수료 4000원이 부과된다.

한편 여객자동차 플랫폼 가맹사업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T 블루'의 지역 택시 호출 점유율은 80% 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4월 진출한 뒤 광주 전체 택시법인 76개사 가운데 36개사가 가맹법인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합작사 '우티'가 광주에 본격 진출했다. 전남에서는 순천 9개, 목포 5개 택시 법인이 카카오 T 블루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역량 강화

전남TP, 지원 프로그램 가동

전남테크노파크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중 하나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총 24개사를 선정해 기술 및 특화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생태계를 체계화, 고도화해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전남지역사업평가단과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센터가 추진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인 기능성화학, 그린에너지, 금속·소재부품, 물류운송과 중점유치업종인 석유화학소재, 철강,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서비스 연관기업들의 제품 개선·연구개발·시험 및 인증 등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고 재직자 교육, 미래신산업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학·연·관 클러스터와 연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술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0.93(+1.64)
↑	코스닥	675.07(+1.20)
↓	금리 (국고채 3년)	4.303(-0.035)
↓	환율 (USD)	1438.90(-1.00)